선명상 대중화·세계화…조계종 조직개편 박차

2024 종단 결산

선명상대회로 국민 마음평안 기여
조계종, 30년 만에 조직개편 박차
주요 종단들 수장 선출로 '활기'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선명상 대중화 한발짝 더

2024년 한국불교는 장자종단 조계종의 제37대 집행부가 주요 종책으로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 37대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명상센터 건립 등을 종단적 불사로 전개했다.

9월 28일 광화문에서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는 선명상 대중화의 포문을 연 행사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간화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선명상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선명상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전 국민 5분 선명상'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선명상 안내서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선명상 실천을 돕고 있다.

10월 5~13일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통해 K-선명상과 한국불교 세계에 알렸다. 120여 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8일간의 일정 중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내면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명상을 소개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방미는 한국불교 고유의 문화를 소개함과 더불어 철학, 과학과 맞닿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유하고 선명상을 통해 마음평안과 행복을 찾는 여정을 미국 사회에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염원하며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은 미국 예일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 모습.

조계종 조직개편 박차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30년 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계로 운영됐던 조계종이 총무원 1원 체계로 탈바꿈한다. 조계종은 올 한 해 조직개편을 위한 8차에 걸친 미래특위 회의와 공청회, 단위보고와 협의 등을 거쳤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열린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현행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12부실 17개국에서 총무원 10부실소 13국으로 개편된다. 일원 체재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후반기 시작

11월에는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후반기를 시작했다. 후반기 중앙종회의장에는 주경 스님, 수석·차석부의장에는 태효·경암 스님이 소임을 맡는다. 원 구성을 마친 이들은 정기회를 통해 첫 의정 활동을 시작,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논의하고 원안인 909억 5000여 만원을 확정했다.

불교계 주요 종단도 바쁜 한 해

불교계 주요 종단들도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올해로 제28대 집행부 1년 차를 맞은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을 통해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진,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와 태고보우 국사가 임제 18대 법손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인가받은 중국 후저우 천호암에서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법원루)' 기공·시삽식을 개최했다.

태고종은 송현광장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막아내기도 했다. 상진 스님은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에 나섰고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광장 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철회하고 태고종 총무원 청사를 방문해 사과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한국 대표 밀교종단들의 수장들이 교체되기도 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는 능원 정사가 선출됐다. 능원 정사는 12월 10일 열린 취임법회에서 "감동교화로 새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월 17일 임기를 시작한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는 6년 동안 총지종도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게 된다.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에는 록경 정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12월 27일부터 3년 간이다.

사회 곳곳에서 이어진 자비 실천

2024 사회·NGO 결산

오체투지, 시국선언 동참
청년 대상 사업 활성화
국내외 구호활동 이어져

2024년 불교계는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였다. 2030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 사업을 여럿 펼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교계 NGO단체들은 국제 구호현장에서 이재민과 현지인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행보를 펼쳤다.

올해도 불교계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했다. 또한 연말에 전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초 이태원특별법 공포 촉구를 시작으로 연대가 필요한 이들의 편에 섰다.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촉구 오체투지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노동자,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대학 인근 사찰에서 무료로 점심을 나누는 '청년밥心'은 청년 복지 사업의 모델이 됐다.

12월 3일 밤중 발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불교계에서도 소리 높여 비판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성명문을 통해 역사의 후퇴인 비상계엄을 사퇴로 참회하라며 규탄했다. 불교인권위원회와 범불교시국회의는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짚고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어 동국대 학생들은 비상계엄 이후 첫 대학생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도 규탄 성명문을 발표해 국민의 주권 보장을 촉구했다.

청년 전법 바람이 분 불교계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전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대학생들을 위한 점심 지원 사업 '청년밥心'을 시작했다. 6월 서울 연화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찰 3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국적 이목을 끌었던 '나는 절로'는 인연 만남에 어려움을 겪는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세대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한 '나는 절로'는 낙산사 편에 1501명이 접수하며 공무원보다 높은 경쟁률인 77대 1을 기록했다.

불교계 NGO 단체들은 자연재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국제 구호현장에 뛰어들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차양막 설치와 식료품을 나눴다.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첫 한국 법당을 개원하며 아프리카 농업 발달과 한국불교 전법에 역할을 했다. 로터스월드는 본지와 협약을 맺고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미얀마 국민을 위한 정수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했다. 사찰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7월부터 현재까지 미얀마에 정수시설 3곳이 자리 잡게 됐다.

김가령 기자

2024 전법 키워드…'Hip 불교' '단기출가'

2024 포교·신행 결산

국제불교박람회, 불교 AI뮤직 등
신선한 모습으로 2030세대 매료
'단기출가' 새로운 삶 모델 제시

2024년 불교를 장식했던 키워드는 단연 'Hip(힙) 불교'였다. 국제불교박람회, AI 등 젊고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불교는 MZ세대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또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출가자 절벽시대'에 정식 출가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Hip 불교' MZ 사로잡다

올 한해 한국불교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불교 또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네!"가 아닐까. 한자와 심오한 교리로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가졌던 불교는 '힙(Hip)'하다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환골탈태해 2030 MZ 세대를 사로잡았다.

시작은 올해 4월 서울무역전시컨벤



2030세대로 인산인해를 이룬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뉴진 스님이 선보인 EDM퍼포먼스는 청년들 취향을 저격했다.

선센터(SETEC)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였다. 개막 당일부터 SNS로 입소문을 탄 박람회는 2030 세대로 인산인해였다.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 '뉴진 스님'이 선보인 EDM 퍼포먼스는 청년들 취향을 저격했다.

AI로 만든 불교음악인 '불교 AI뮤직' 역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행했다. 특히 유튜버 '곰딴'이 AI로 제작한 '반야심경' 영상은 12월 9일 기준 88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힙한 불교' 열풍을 이어갔다.

청년세대를 사로잡은 '힙한 불교'는 청년·대학생 전법의 촉발제로 작용했다. 동국대는 9월과 11월 서울·WISE 캠에서 '영캠프' 수계법회를 봉행, 4500여 명의 대학생이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또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8월에는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상월청년회 6기'가 출범하고 봉녕사 청년회는 9년 만에 재창립됐다.

단기출가 프로그램 확산

올해 각 사찰에는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성황을 이뤘다. '단기출가'는 불확실한 미래와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힐링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실제 출가로도 이어져 주목된다.

수원 봉녕사는 한 달간 비구니 승가를 체험하는 '여성출가학교'에서 출가 희망 참가자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평창 월정사는 '단기출가학교' 프로그램이 올해 7월 20주년을 맞아 '2024 월정사-우든피쉬 글로벌 명상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80여 명의 외국인 청년들은 삭발하고 계율을 받아 4주간 출가생활을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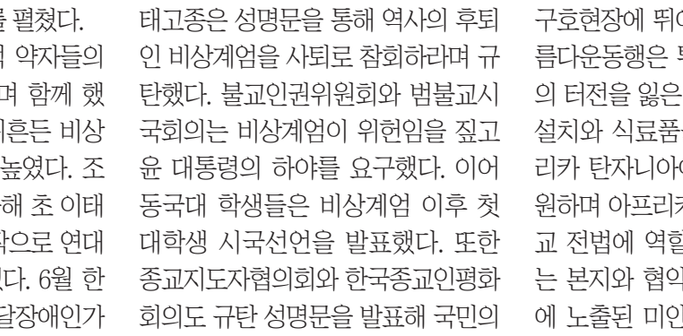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에서도 4월과 8월 '조계사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민재 기자

(사)날마다 좋은날

행복바라미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행복!



모금계좌 국민은행 023537-04-003561 (사)날마다좋은날
ARS기부 060-701-0108 (1통화 5천원)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참종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참종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참종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종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1월 6일(월요일) 오후 2시
장 소 참종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